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J Nutr Health) 2017; 50(3): 284 ~ 293
http://dx.doi.org/10.4163/jnh.2017.50.3.284
pISSN 2288-3886 / eISSN 2288-3959

Research Article

#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미혼여성의 모유수유 의도와 관련된 신념요인

장민경[1] · 이승민[2] · 길진모[3†]
[1]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 전공, [2]성신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3]호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Belief factors associated with breastfeeding intentions of single women: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ang, Min Kyung[1] · Lee, Seung-Min[2] · Khil Jin Mo[3†]
[1]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01333, Korea
[2]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01333, Korea
[3]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onam University, Gwangju 62399, Korea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behavioral intentions of breastfeeding in single women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ethods:**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350 single women in her 20~30s, and 316 respondents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Spearma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subjects showed strong intentions and favorable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The subjects were more favorably influenced by their mothers, siblings, friends, and coworkers who previously experienced breastfeeding than ones with no breastfeeding experience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breastfeeding intention and attitudes ($r = 0.321$, $p < 0.0001$), subjective norms ($r = 0.434$, $p < 0.0001$), and perceived control ($r = 0.307$, $p < 0.0001$). However, regression analysis with two different age groups revealed that subjective norms ($p < 0.0001$) and perceived control ($p < 0.001$) contributed to the model of explaining breastfeeding intentions in subjects who were 25 years old or younger, whereas attitudes did not. In addition, subjects who were more than 25 years old showed that attitudes ($p < 0.003$) and subjective norms ($p = 0.002$) contributed to the model of explaining breastfeeding intentions while perceived control ($p < 0.070$) showed less contributio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can be a useful tool to increase the rate of breastfeeding intentions in single women when designing educational materials, which requires consideration of age differences.

**KEY WORDS:** single women, breastfeeding, inten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belief factor

## 서 론

모유는 영유아의 적절한 성장과 발육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식품으로 다양한 면역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감염,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할 수 있다.[1-3] 또한 모유수유를 통한 모자간의 친밀한 피부접촉은 영아에게 건강한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하며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모는 자궁수축이 촉진되어 임신전의 상태로 회복이 빠르고 어머니로서의 심리적 성숙을 기대할 수 있으며, 유방암, 난소암의 발생빈도 및 산후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3] 따라서 모유수유는 영아와 어머니 모두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최선의 수유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보고된 모유수유 실태 자료[4]를 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15년까지 66개국의 가정소득 자료를 5분위로 나누어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의 모유수유율의 향상속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1960년대 95.1%였던 모유수유율이 1970년대부터 90.0%로 점차 감소하여 2000년에는 10.2%까지 감소하다가 최근에 와서 2003년 16.5%, 2006년 24.2%, 2009년 36.2%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2012년 32.3%로 더 이상 증가하

Received: April 12, 2017 / Revised: April 30, 2017 / Accepted: June 1, 2017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tel: +82-62-940-5412, e-mail: jkhil@honam.ac.kr

© 2017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지는 않으며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5] 모유수유가 아기와 산모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이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고 모유수유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유수유를 결정하는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금까지 보고된 선행연구[6-8]에서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것은 산모의 교육정도, 직장유무, 분만방법, 모유수유에 대한 의도 및 계획, 모유량,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 모유수유에 대한 가족과 친구의 지지, 그리고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환경 등이 거론되었다. 모유수유는 지식이 아닌 행동이며, 많은 이로운 점이 있지만, 실천에 옮기는데 꽤 불편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들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행동의지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숙아 어머니, 초산모, 직장맘, 산모 등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영양교육이 실시 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9,10] 그러나 모유수유와 같은 행동의지는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모유수유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기에 실시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실제 외국의 경우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모유수유 영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11-13] 국내에서도 여성의 모유수유관련 지식, 태도, 신념 등이 모유수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모유수유를 증진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비롯하여 대학생, 미혼여성 등에게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4] 또한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모유수유 의지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행동 또는 건강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건강신념모델 (health belief model), 계획적 행동이론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사회인지론 (social cognitive theory)과 같은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이 대두되었다. 이 중 계획적 행동이론[15]은 Fishbein과 Ajzen[16]이 제안한 합리적 행동이론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 연장된 이론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태도), 사회적 요인 (주관적 규범), 통제적 요인 (인지된 행동 통제력)으로 구분하여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계획적 행동이론과 모유수유 실천의도는 국내에서는 주로 초임여성 등 기혼여성에서 살펴본 연구[17]가 있고 외국에서는 청소년[11], 13~14세 학생들 대상,[12,13] 기혼여성[18,19]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다.

본 연구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결혼과 출산을 경험 할 20~30대 미혼여성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모유수유 행동의도를 높여 미래의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고자 계획적 행동이론을 이용하여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요인을 조사하고 모유수유율의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연구방법

###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된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의 미혼 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집단변인의 임신수유 영양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선행연구[6]에서 조사대상자의 직업에 따라 임신과 수유에 관한 의식과 인지도에 대해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미 모유수유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의료계종사자, 영양사, 임신과 출산을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 대학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자가 배부된 설문지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적절치 못하게 표기된 설문지 등을 제외하고 총 316부를 통계처리에 이용하였다.

###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초임 여성의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관한 선행연구[17]에서 제작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 시점에 알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모유수유에 대한 행동 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력으로 구성되었다 (Fig.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는 나이, 학력, 직업, 종교, 거주지, 영양교육 경험의 유무,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본인의 영아기 모유수유의 유무, 모유수유에 대해 권유받은 경험과 대상, 수입 등의 11가지 문항이 포함되었다. 모유수유에 대한 행동의도로 조사대상자가 미래에 모유수유를 할 의도가 얼마나 있는지 5점 척도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모유를 먹이지 않을 것이다'는 1점, '모유를 먹일 것이다'는 5점으로 하여 점수화하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과 모유수유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모유수유 행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이로운 결과와 불리한 결과를 12개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을 묻는 문항에서는 '그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를 5점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를 1점으로 하여 5점 척도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는 위의 12개의 항목에 대한 대상자의 평가를 '아주 나쁘다'에 1점, '아주 좋다'에 5점을 주는 5점 척도를 이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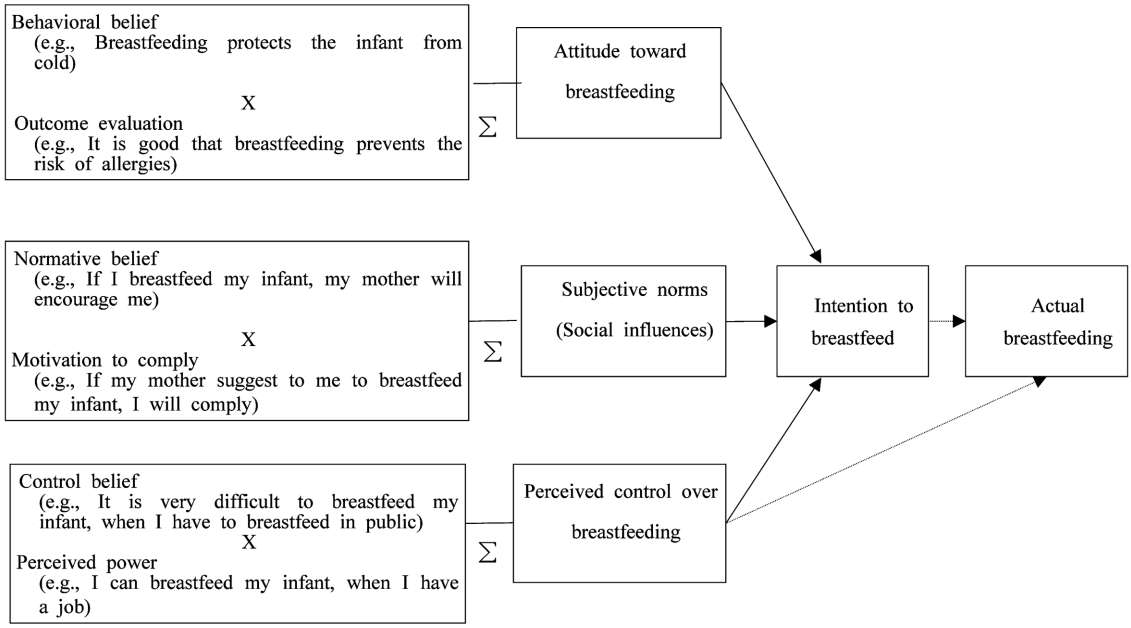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Actual breastfeeding was not measured in this study.)

조사하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점수는 모유수유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과 모유수유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이용하여 차례로 모유수유 행동결과 신념과 결과평가 12개의 문항을 각각 곱한 후 점수를 합산하고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준거인 7명을 제시한 후 규범적 신념을 묻는 문항에서 이들 준거인이 각각 대상자의 모유수유를 격려할 지에 대해 '적극 격려할 것이다'에서 '전혀 격려하지 않을 것이다'를 2점에서 -2점사이로 하여 5점 척도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순응 동기는 이들 준거인이 모유수유를 권할 경우 대상자가 얼마나 의견에 따를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다'의 5점과 '전혀 따르지 않을 것이다'의 1점으로 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규범의 값은 규범적 신념 문항과 순응동기 문항의 점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차례로 7번까지 곱한 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하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인지된 행동 통제력은 통제신념과 인지된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유수유 시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어려운 상황을 제시한 후 통제신념에서 각각의 상황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하는 지를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의 5점에서 '매우 어려울 것이다'의 1점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인지된 능력은 위의 11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상자가 얼마나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할 수 있을 것이다'를 5점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를 1점으로 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모유수유의 인지된 행동 통제력은 통제신념의 점수에 인지된 능력 점수를 각 문항별로 곱하여 합산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 통계분석

설문지 자료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oftware program version 9.1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되었다. 계획적 행동이론 변수들 간의 상관성은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를 연령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력, 행동의도의 평균점수를 구해 t-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연령별 그룹에 따른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0.05의 유의수준에서 실시하였다.

## 결 과

###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평균연령은 만 26세로 25세 이하가 111명 (35.0%), 만 25~29세가 160명으로 50.5%였으며 미혼여성을 대상자로 제한하여 만 30세 이상의 여성은 45명 (14.5%)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대학이상 졸업자가 60.8%, 전문대학 졸업이하는

39.2%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사무직을 비롯하여 교직원, 공무원, 전문직종이 35.8%, 자영업, 서비스업, 학원 강사, 대학원생이 46.5%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13.0%, 기타 또는 무직이 4.7%였다. 소득분포는 월 149만원 이하가 39.2%, 150~199만원이 27.5%, 200만원 이상이 33.2%로 응답하였다.

## 모유수유 행동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 행동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과 모유수유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모유수유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78 ± 0.49로 모유수유행동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높은 점수를 보인 행동신념은 '엄마와 아기가 더 친밀해질 것이다', '아기에게 최선의 영양을 제공할 것이다', '아기의 지능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유방의 형태가 망가질 것이다'의 문항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행동신념 점수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행동 결과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4.25 ± 0.40으로 행동신념에 비해 대부분 높게 나타났다. 행동신념에서 낮은 점수가 나타난 '유방의 형태가 망가질 것이다'와 '부부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의 두 개의 문항은 결과평가에서 더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모유수유 행동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 행동신념과 결과평가를 각각 곱하여 합산한 후 문항 수로 나눈 값이다. 평균 25점 만점에 16.77 ± 3.07로 높은 평균점수로 나타나 모유수유 행동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 Variables | | N (%) |
|---|---|---|
| Age (years) | ≤ 25 | 111 (35.0) |
| | 26~29 | 160 (50.5) |
| | ≥ 30 | 45 (14.5) |
| Education | ≤ Junior college graduation | 124 (39.2) |
| | College-graduate school graduation | 192 (60.8) |
| Job | Official, teaching staff, public official, Academy speaker | 113 (35.8) |
| | Personal-service business, service industry, academy speaker, graduate student | 147 (46.5) |
| | Manufacturing industry | 41 (13.0) |
| | Inoccupation, etc. | 15 (4.7) |
| Monthly Income (won) | ≤ 1,490,000 | 124 (39.2) |
| | 1,500,000~1,990,000 | 87 (27.5) |
| | ≥ 2,000,000 | 105 (33.2) |
| Total | | 316 (100.0) |

## 모유수유에 대한 주관적 규범

모유수유에 대해 주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로 조사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모유수유를 권유할 것이며, 권유에 따르겠다는 높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가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평균점수는 0.80 ± 0.68 (-2.0~2.0)로 조사대상자들은 그들의 준거인이 모유수유를 격려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2.** Attitude toward breastfeeding

| Variables | Behavioral belief[1)] | Outcome evaluation[1)] |
|---|---|---|
| | Breastfeeding | It is good that breastfeeding |
| Protects the infant from cold | 4.12 ± 0.88[2)] | 4.76 ± 0.55[2)] |
| Prevents the risk of allergies | 4.04 ± 0.89 | 4.76 ± 0.56 |
| Contributes to intellectual development | 4.29 ± 0.84 | 4.79 ± 0.52 |
| Provides the best nutrition for the infant | 4.53 ± 0.66 | 4.78 ± 0.50 |
|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weight for the mother | 3.56 ± 1.24 | 4.58 ± 0.74 |
| Stimulates contraction of the uterus | 3.30 ± 1.17 | 4.54 ± 0.80 |
| Reduces the risk of breast cancer | 4.04 ± 0.96 | 4.68 ± 0.67 |
| Promotes psychological closeness between mother and infant | 4.73 ± 0.55 | 4.86 ± 0.39 |
| Costs less than formula feeding | 4.30 ± 0.88 | 4.65 ± 0.65 |
| Is more convenient than formula feeding | 3.07 ± 1.38 | 4.17 ± 1.03 |
| Ruins appearance of breasts | 2.95 ± 1.17 | 2.20 ± 1.31 |
| Interferes with having sex | 2.38 ± 1.12 | 2.28 ± 1.21 |
| Mean | 3.78 ± 0.49 | 4.25 ± 0.40 |
| Attitude | 16.77 ± 3.07[3)] | |

1) Mean ± SD 2) 1: strongly disagree, 3: normal, 5: strongly agree 3) Possible score range is 1~25. The score of 25 indicates highest attitude toward breast feeding.

**Table 3.** Subjective norms of breastfeeding

| Variables | Normative beliefs[1)] | Motivation to comply[1)] |
|---|---|---|
| | If I breastfeed my infant, _____ will encourage me. | If_____ suggest to me to breastfeed my infant, I will comply. |
| My mother | 1.52 ± 0.71[2)] | 4.34 ± 0.79[3)] |
| Friends with breastfeeding experience | 1.06 ± 0.95 | 4.23 ± 0.85 |
| Friends without breastfeeding experience | 0.38 ± 1.04 | 3.51 ± 1.13 |
| Siblings with breastfeeding experience | 1.04 ± 0.96 | 4.22 ± 0.82 |
| Siblings without breastfeeding experience | 0.40 ± 1.03 | 3.53 ± 1.07 |
| Co-worker with breastfeeding experience | 0.92 ± 0.96 | 4.07 ± 0.94 |
| Co-worker without breastfeeding experience | 0.26 ± 1.05 | 3.37 ± 1.19 |
| Mean | 0.80 ± 0.68 | 3.89 ± 0.79 |
| Subjective norms | 3.69 ± 3.05[4)] | |

1) Mean ± SD 2) -2: strongly discourage, 0: neither discourage nor encourage, 2: strongly encourage 3) 1: strongly disagree, 3: neither agree nor disagree, 5: strongly agree 4) Possible score range is 1~5. The score of 5 indicates highest social influences toward breast feeding.

**Table 4.** Perceived control over breastfeeding

| Variables | Control beliefs[1)] | Perceived power[1)] |
|---|---|---|
| | It is very difficult to breastfeed my infant, _____. | I can breastfeed my infant,_____. |
| When I have a job | 1.88 ± 0.90[2)] | 2.59 ± 1.22[3)] |
| When I have to breastfeed in public | 1.52 ± 0.81 | 1.89 ± 1.06 |
| When I need to maintain breast shape | 2.21 ± 0.97 | 2.81 ± 1.20 |
| When the infant hates to suck nipple | 1.97 ± 0.95 | 2.59 ± 1.05 |
| When the infant bites nipple | 2.21 ± 1.00 | 2.70 ± 1.12 |
| When I have to cut down on coffee, alcohol and smoking | 3.18 ± 1.52 | 3.36 ± 1.50 |
| When I suffer from mastitis | 2.09 ± 1.01 | 2.54 ± 1.07 |
| When I have Caesarian section | 2.80 ± 1.16 | 2.96 ± 1.15 |
| When I have restriction of social activities | 2.39 ± 1.03 | 2.72 ± 1.11 |
| When I am physically very tired | 2.33 ± 1.08 | 2.64 ± 1.16 |
| When I have to take sole feeding responsibility | 2.22 ± 1.13 | 2.53 ± 1.18 |
| Mean | 2.25 ± 0.69 | 2.67 ± 0.84 |
| Perceived control | 6.81 ± 3.73[4)] | |

1) Mean ± SD 2) 1: very difficult, 3: normal, 5: very easy 3) 1: very impossible, 3: normal, 5: very possible 4) Possible score range is 1~25. The score of 25 indicates highest perceived control over breastfeeding.

특히, '어머니', '모유수유의 경험이 있는 친구'와 '모유수유의 경험이 있는 형제자매'가 적극 격려할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순응동기의 평균점수는 3.89 ± 0.79로 조사대상자들은 준거인의 모유수유 권유에 적극적으로 순응할 의사를 보였다. '어머니',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친구', '형제자매', '직장동료'의 권유에 적극적으로 따를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의 문항을 각각 곱하여 합산한 후 준거인 수로 나눈 값이다. 평균 5점 만점에 3.69 ± 3.05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이 준거인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모유수유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제력

모유수유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제력에서는 모유수유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통제신념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지된 능력을 알아보았으며 Table 4와 같다. 모유수유에 대한 통제신념의 평균점수는 2.25 ± 0.69로 나타났으며 '커피, 술, 담배 등 아기에게 해로운 기호품을 삼가야 할 경우'에서 가장 높은 통제신념 (3.18 ± 1.52)을 보였고 '공공장소에서 모유수유를 해야 하는 경우'가 가장 낮은 통제신념 (1.52 ± 0.81)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저조한 점수가 나왔으며, '모유수유를 위해 커피, 술, 담배 등 아기에게 해로운 기호품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통제신념을 보인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들이 비교적 극복하기 쉬운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차, 버스,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먹이는 것', '직장에 다니는 것' 등의 문항에 대해서는 통제신념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는 인지된 능력의 항목 중에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 매우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로 간주하고 있었다. 모유수유에 대한 인지된 능력의 평균점수는 2.67 ± 0.84로 '커피, 술, 담배 등 아기에게 해로운 기호품을 삼가야 할 경우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가 3.36 ± 1.50으로 가장 높은 인지된 능력을 보였다.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통제신념과 인지된 능력의 각각의 문항 값을 곱한 후 합산하여 전체 문항으로 나눈 값으로 25점 만점에 6.81 ± 3.73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 모유수유에 대한 행동의도와 계획적 행동이론의 상관관계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대해 '모유를 먹일 것이다 (5점)', '모유를 먹이지 않을 것이다 (1점)'라는 것으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4.40 ± 0.87로 매우 높은 행동의도를 나타냈다 (Table 5). '모유를 먹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1.3%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모유수유를 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대상자가 전체의 83%였으며 그 중 특히 '모유를 먹일 것이다'에서 5점에 응답한 대상자가 61.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Table 5.** Distribution of breastfeeding intention

| Variable | Score | N (%) |
|---|---|---|
| Breastfeeding intention | 1 (unlikely) | 4 (1.3) |
| | 2 | 4 (1.3) |
| | 3 | 46 (14.5) |
| | 4 | 69 (21.8) |
| | 5 (likely) | 193 (61.1) |
| Total | | 316 (100.0) |
| Mean ± SD | 4.40 ± 0.87[1)] | |

1) Possible score range is 1~5. The score of 5 indicates highest intention toward breastfeeding.

계획적 행동이론에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행동의도로 보고 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력의 세 가지 변수를 규정하고 있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모유수유 결과신념, 모유수유 결과평가로 구성하였고 모유수유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로 구성하였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통제신념과 인지된 능력으로 나타내었다. 모유수유의 행동의도와 결과신념, 결과평가, 태도, 규범적 신념, 순응동기, 주관적 규범, 통제신념, 인지된 능력, 인지된 행동통제력의 10가지 요인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계획적 행동이론에 부응하여 모유수유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과 행동결과에 대한 평가 모두 모유수유의 태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나 특히 결과신념과 0.909 ($p < 0.001$)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는 모유수유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특히 규범적 신념과 0.977 ($p < 0.001$)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통제신념과 인지된 능력 모두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모유수유에 대한 행동의도는 계획적 행동이론의 세 가지 변수인 태도 ($r = 0.321$, $p < 0.001$), 주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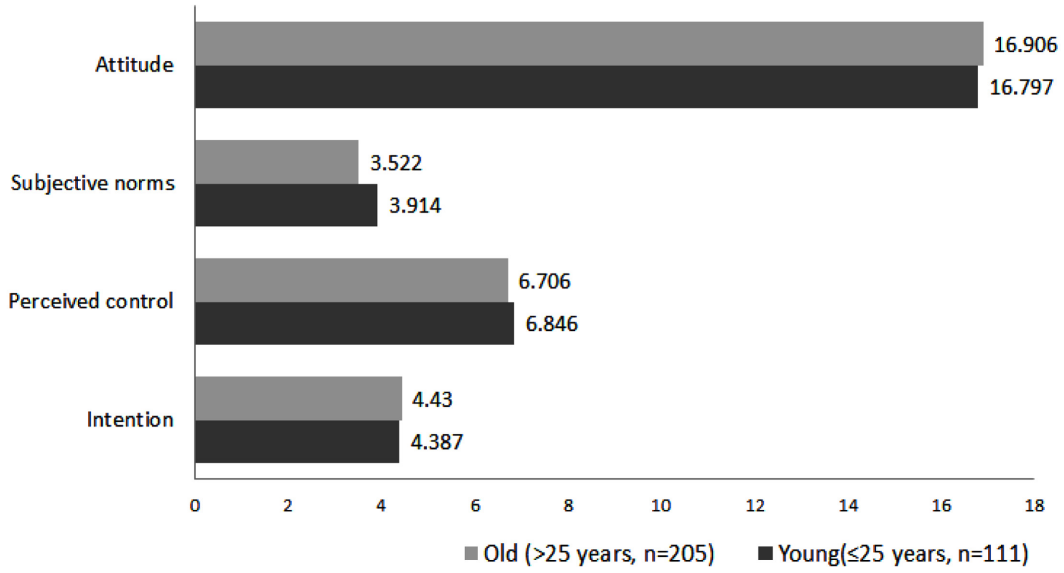


**Fig. 2.** Mean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control, and intention scores by age groups

규범 (r = 0.434, p < 0.001), 인지된 행동통제력 (r =0.307, p < 0.001) 모두와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순응동기 (0.462, p < 0.001)가 행동의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신념 (0.185, p < 0.001)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을 25세 미만과 25세 이상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 연령그룹 간에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력, 행동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2). 그러나 연령그룹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5세 이상의 그룹에서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유의하지는 않으나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5세 미만의 그룹에서는 주관적 규범과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유수유태도는 행동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 즉 주관적 규범은 두 그룹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교적 연령이 많은 그룹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어린 그룹에서는 인지된 행동통제력이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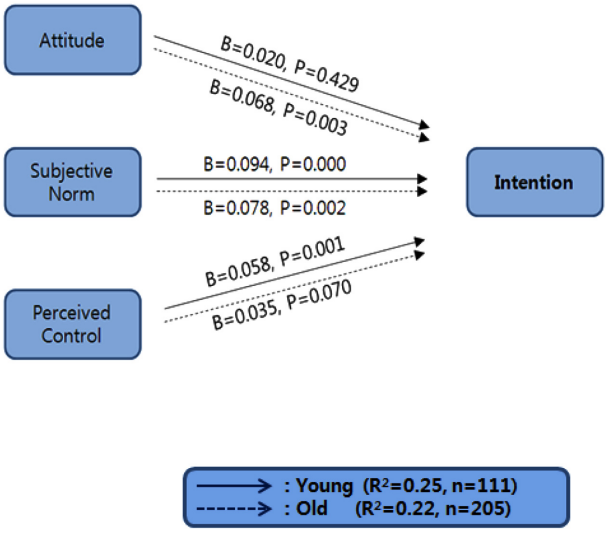


**Fig. 3.**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on breastfeeding intention by age groups.

##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계획적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미혼여성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력 요인이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모유수유에 관하여 실행되어진 연구는 주로 임산부등 기혼여성이 대상자인 경우가 많았으나 Jefferson[20]에 의하면 모유수유 행동신념은 종종 임신 이전에 결정되어지며 특히 모유수유의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로 미혼여성을 선정하여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모유수유를 효과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모유수유 행동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결과신념은 3.78로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유수유의 결과로 '엄마와 아기가 친밀해질 것이다', '아기에게 최선의 영양을 제공할 것이다' 등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 초임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Kim과 Park의 선행연구[17]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엄마와 아기의 친밀감 증진, 아기에게 최선의 영양제공 등의 가장 긍정적이었던 문항의 순서와 본 연구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미혼여성들도 초임여성과 비슷한 모유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ory of planned behavior variables

| Variables | Behavioral beliefs | Outcome evaluation | Attitude | Normative beliefs | Motivation to comply | Subjective norms | Control beliefs | Perceived power | Perceived control | Intention |
|---|---|---|---|---|---|---|---|---|---|---|
| Behavioral beliefs | 1 | - | - | - | - | - | - | - | - | - |
| Outcome evaluation | 0.355*** | 1 | - | - | - | - | - | - | - | - |
| Attitude | 0.909*** | 0.646*** | 1 | - | - | - | - | - | - | - |
| Normative beliefs | 0.326*** | 0.315*** | 0.410*** | 1 | - | - | - | - | - | - |
| Motivation to comply | 0.372*** | 0.378*** | 0.459*** | 0.607*** | 1 | - | - | - | - | - |
| Subjective norms | 0.365*** | 0.355*** | 0.457*** | 0.977*** | 0.690*** | 1 | - | - | - | - |
| Control beliefs | -0.042 | 0.080 | 0.003 | 0.164** | 0.120* | 0.164** | 1 | - | - | - |
| Perceived power | 0.074 | 0.165** | 0.132* | 0.241*** | 0.283*** | 0.276*** | 0.629*** | 1 | - | - |
| Perceived control | 0.020 | 0.143** | 0.080** | 0.212*** | 0.221*** | 0.236*** | 0.892*** | 0.886*** | 1 | - |
| Intention | 0.283*** | 0.219*** | 0.321*** | 0.377*** | 0.462*** | 0.434*** | 0.185*** | 0.367*** | 0.307*** | 1 |

* p < 0.05, ** p < 0.01, *** p < 0.001

수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연구[21]에서도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받은 산모는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모유수유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과 불신은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여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22]의 연구에서도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이 높은 경우에 모유수유 실천의지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ee[23]의 연구에서는 태도점수가 높은 군일수록 미래의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특히 모유수유의 경험이 없는 주변인보다 경험이 있는 친구, 형제 또는 자매, 직장동료의 권유에 더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것으로 보아 모유수유 경험의 유무가 조사대상자의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7]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주변인이 남편이었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 시어머니,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형제, 자매, 친구 등의 순서였던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는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준거인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제외하면 유사한 순서로 주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간에 주관적 규범에서도 큰 차이는 없었다. 중학생에서도 모유수유 관찰경험이 있는 경우 모유수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22] 미국의 흑인여대생 대상의 연구[20]에서도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주변인의 존재가 모유수유 실천의지를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어린 시절의 모유수유 경험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영양교육을 계획할 때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강사의 경험담과 함께하는 교육, 잡지나 회사 사보지를 통해 모유수유 경험담을 교육자료로 이용하는 것 등이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모유수유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제력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모유수유를 해야 하는 경우와 직장이 있는 경우가 통제신념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만의 코호트 연구[24]에서도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의 모유수유의 실천과 지속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모유수유의 주된 장애요인이라고 판단된다. 국내에서 보고된 연구[25]에 의하면 취업상태가 모유수유의 시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1개월, 6개월, 12개월간의 모유수유 현황을 비교할 때 취업상태의 여성의 모유수유 지속율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유수유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사회적인 지원이 부족하며, 그 결과가 본 연구에서도 미혼여성의 인지된 통제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유수유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하는 법령이나 규정 등 제도적 장치나 직장에서 모유수유 여성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강제적 규정은 없다. 모유수유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시책으로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에 대해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현황에 의하면 범정부차원의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지하철 역사, 도서관 등 324개의 공공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513개의 관공서에도 모유수유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고 있으며 점차 증가되어 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조윤 등의 연구[26]를 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래에 모유수유를 하겠다는 대학생이 80.7%, 여대생이 84.2%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행동의도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 실천율이 이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행동의도가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im과 Choi의 연구[27]에서 국내의 모유수유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여성 취업증가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이 36.5%,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한 지식부족'이 30.6%로 나타난 것에서알 수 있듯이 사회적 시스템의 지원부족과 모유수유 교육부재에 의해 실제 모유수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더욱 현실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배려로서 육아휴직, 재취업 보장 등이 확립되어야 하며,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한 지식 교육도 임산부 뿐 아니라 미혼여성을 대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획적 행동이론을 구성하는 10가지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모유수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도와 행동의도를 구성하는 세가지 변수인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력을 각각 구성하는 세부변수와 유의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과 행동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모유수유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 두 변수 모두와 유의적인 상관성을 보였고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통제신념과 인지된 능력의 두 변수와 유의성이 있었다. 모유수유 행동의도는 나머지 변수 9개와 모두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계획적 행동이론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비교적 연령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 대상자가 미혼여성이어서 연령에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5세 미만과 25세 이상의 연령별 그룹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력이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주관적 규범은 두 그룹 모두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유수유 태도는 25세 이상에서만 모유수유 의도에 영향을 미쳤고 반면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25세 미만에서 모유수유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세 이상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으나 경향을 나타내었다. 두 그룹간의 모유수유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력, 모유수유 의도를 t-test로 분석하여 연령별로 그룹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중회귀분석에서 다르게 나타난 원인은 파악할 수 가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계획적 행동이론을 활용한 모유수유 영양교육 중재 시 연령에 따라 교육의 목적과 수단을 차별화하여 다양하게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요 약

본 연구는 미혼여성 316명을 대상으로 계획적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력' 요인이 미혼여성의 장래 모유수유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만 26세였으며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이 60.8%로 높은 편이었고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25점 만점에 16.77 ± 3.07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모유수유 행동에 대한 결과신념보다 모유수유 행동에 대한 결과평가가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엄마와 아기가 더 친밀해질 것이다'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특히 어머니와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주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모유수유 권유에 적극적으로 따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행동의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25점 만점에 6.81 ± 3.73으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공공장소에서 모유수유를 하는 것을 가장 어려운 통제신념으로 응답하였고 인지된 능력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모유수유 행동의 인지된 행동통제력에서 '커피, 술, 담배 등 아기에게 해로운 기호품을 삼가는 것'이 가장 높은 통제신념과 인지된 능력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모유수유 행동의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40 ± 0.87로 매우 높은 행동의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행동의도는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r = 0.321$, $p < 0.0001$), 주변사람들의 영향 ($r = 0.434$, $p < 0.0001$), 인지된 통제력 ($r = 0.307$, $p < 0.0001$) 등 세 변수와 모두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25세 미만의 조사대상자 그룹에서 모유수유 행동의도는 주변사람들의 영향이 클수록 ($p < 0.0001$), 인지된 행동통제력이 클수록 ($p < 0.001$) 높았다. 반면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 행동의도와 관련성이 없었다. 그러나 25세 이상의 조사대상자에서는 모유수유 행동의도가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p < 0.003$), 주변사람들의 영향이 클수록 (0.002) 높았으며 인지된 통제력은 $p < 0.070$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모유수유 행동의도는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 태도, 주변사람들의 영향, 인지된 행동통제력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25세 이상의 여성에서 모유수유 실천의도를 예측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와 주변사람들의 영향력이었으며 25세 미만의 여성에서는 주변사람들의 영향력과 통제신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행동의도를 파악하여 실제 모유수유 의도가 결혼과 출산 후 모유수유로의 행동으로까지 실천이 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고, 또한, 모유수유의 실시기간에 따른 행동의도를 분리하여 분석하지 않아 미래에 모유수유의 시작은 하였으나 6개월간의 완전한 모유수유에 도달하는 모유수유의 지속적 행동의도는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모유수유의 영양교육 자료개발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변사람들의 영향, 인지된 행동통제력 등 구성요인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유수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꾸준한 모유수유 영양교육이 필요하며 육아휴직제도, 직장내 모유수유실 설치 등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제도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Section on Breastfeeding. Breastfeeding and the use of human milk. Pediatrics 2012; 129(3): e827-e841.
2. Nutrition during lactation. In: Lee HY, Oh SI, Cho HK, Choi MK, Kim MH, editors. Nutrition through the Life Cycle. 2nd ed. Paju: Gyomoonsa; 2016. p.66-91.
3. Lee KH, Lee YS. Maternity & women's health nursing I. Revision edition. Seoul: Hyunmoonsa; 2011.
4. Victora CG, Bahl R, Barros AJ, França GV, Horton S, Krasevec J, Murch S, Sankar MJ, Walker N, Rollins NC; Lancet Breastfeeding Series Group. Breastfeeding in the 21st century: epidemiology, mechanisms, and lifelong effect. Lancet 2016; 387(10017): 475-490.
5. Kim SK, Kim YK, Kim HR, Park JS, Son CG, Choi YJ, Kim YW, Lee GE, Yoon AR. The 2012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family

health & welfare.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6. Ahn HS, Lee Y, Oh YJ. Perception and service needs about nutrition education of pregnant and lactating: to compare with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health specialist and college women. Korean J Community Nutr 2006; 11(3): 327-337.
7. Cabieses B, Waiblinger D, Santorelli G, McEachan RR. What factors explain pregnant women's feeding intentions in Bradford, England: a multi-methods, multi-ethnic study. BMC Pregnancy Childbirth 2014; 14(1): 50.
8. Bai Y, Middlestadt SE, Peng CY, Fly AD. Predictors of continuation of exclusive breastfeeding for the first six months of life. J Hum Lact 2010; 26(1): 26-34.
9. Choi EY, Park BS, Park SJ. Integrative review of domestic research papers on breast-feeding intervention. J Korea Acad Ind Coop Soc 2016; 17(1): 441-452.
10. Jang GJ, Kim SH. Effects of breast-feeding education and support services on breast-feeding rates and infant's growth. J Korean Acad Nurs 2010; 40(2): 277-286.
11. Giles M, Connor S, McClenahan C, Mallet J. Attitudes to breastfeeding among adolescents. J Hum Nutr Diet 2010; 23(3): 285-293.
12. Giles M, McClenahan C, Armour C, Millar S, Rae G, Mallett J, Stewart-Knox B. Evaluation of a theory of planned behaviour-based breastfeeding intervention in Northern Irish schools using a randomized cluster design. Br J Health Psychol 2014; 19(1): 16-35.
13. Giles M, Millar S, Armour C, McClenahan C, Mallett J, Stewart-Knox B. Promoting positive attitudes to breastfeeding: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theory-based intervention with school children involving a cluster randomised controlled trial. Matern Child Nutr 2015; 11(4): 656-672.
14. Lee SO, Na SS, Park KY. Exclusive breastfeeding rates of breastfeeding-willing mother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by the 1st, 3rd, and 6th month of postpartum.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12; 16(1): 44-55.
15.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 Behav Hum Decis Process 1991; 50(2): 179-211.
16. Ajzen I, Fishbein M.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ill; 1980.
17. Kim JE, Park DY. A study on predicting behavioral intention of breastfeeding among primigravida. Korean J Community Nutr 2001; 6(3): 331-339.
18. Swanson V, Power KG. Initiation and continuation of breastfeeding: theory of planned behaviour. J Adv Nurs 2005; 50(3): 272-282.
19. Tengku Ismail TA, Wan Muda WA, Bakar MI.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explaining exclusive breastfeeding intention and behavior among women in Kelantan, Malaysia. Nutr Res Pract 2016; 10(1): 49-55.
20. Jefferson UT. Predictors of breastfeeding attitudes among college-educated African Americans. Res Theory Nurs Pract 2015; 29(3): 189-199.
21. Oosterhoff A, Hutter I, Haisma H. It takes a mother to practise breastfeeding: women's perceptions of breastfeeding during the period of intention. Women Birth 2014; 27(4): e43-e50.
22. Cho EA. Knowledge and attitude for breast feed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J Korean Soc Sch Health 2014; 27(2): 69-79.
23. Choi KS, Lee HJ. A study on knowledges and attitudes about breast milk feeding and needs for breast milk feeding educ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Community Nutr 2006; 11(2): 191-204.
24. Chuang CH, Chang PJ, Chen YC, Hsieh WS, Hurng BS, Lin SJ, Chen PC. Maternal return to work and breastfeeding: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Int J Nurs Stud 2010; 47(4): 461-474.
25. Kang NM, Lee JE, Bai Y, Van Achterberg T, Hyun T. Breastfeeding initiation and continuation by employment status among Korean women. J Korean Acad Nurs 2015; 45(2): 306-313.
26. Lee JY, Lee KW, Hyun WJ. A study on knowledge and control beliefs regarding breastfeeding of university students by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d education in breastfeeding. Korean J Community Nutr 2013; 18(5): 457-466.
27. Kim SH, Choi ES, Kim TH. The knowledge and attitude on breast feeding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Womens Health Nurs 2001; 7(1): 93-106.